

광주 AI기업, 美 실리콘밸리 진출 도전

㈜호그린에어 등 6개사, 10일부터 4박 6일간 투자유치활동
실리콘밸리 기업과 판매권 계약, 파트너십 체결 등 성과 기대

광주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이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광주시와 지역 6개 기업은 지난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실리콘밸리 투자유치단 출정식'을 열고, 10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투자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관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지역 내 유망기업 20개사를 선발하고 전문 투자유치 교육을 진행해왔다. 시는 지난 8월 31일 실리콘밸리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내 우수 인공지능 기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실리콘밸리 투자유치단' 참여 기업 6개곳을 선발했다.

선발된 (주)호그린에어, (주)인트플로우, (주)에자일소다, (주)리틀원, (주)남도금형, (주)인디제이 등 6개

기업은 10일부터 4박 6일간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해외네트워킹 전략과 투자유치(IR) 역량강화교육, IR 파지덱, 글로벌 VC와 직접 연계한 멘토링 등의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투자유치 실현을 위한 준비작업에 집중해왔다.

실리콘밸리 현지에서는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사전 매칭된 실리콘밸리 투자자 및 현지기업과 미팅을 진행하게 된다.

이중 인공지능을 탑재한 장시간 체공 다목적 자율비행 드론 전문기업 (주)호그린에어는 2019년 맺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지 드론 전문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단독 판매권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실리콘밸리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기업의 지속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실리콘밸리 KOTRA 무역관과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확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주)리틀원 이병규 대표는 "실리콘밸리에서 직접 개발한 기술로 성공하기 위해 이번 투자유치단에 참여하게 됐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우리 기술을 설명하고 인정받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광주에 와서 창업해 성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혁신기업이 함께 하면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실현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이번 실리콘밸리 투자유치단이 광주 발전의 든든한 성장축이 되고 글로벌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지역의 수많은 기업들의 선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8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 인공지능 실리콘밸리 투자유치단 출정식에 참석, 인사말을 한 후 지역기업 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벨문학상 탄자니아 압둘라자크 구르나 노벨평화상 필리핀 마리아 레사·러 무라토프

올해 노벨문학상은 탄자니아의 소설가인 압둘라자크 구르나에게 돌아갔다. 노벨평화상은 필리핀의 마리아 레사와 러시아의 드미트리 무라토프 등 언론인 2명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7일·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노벨문학상과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각각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노벨문학상의 영예를 안은 압둘라자크 구르나에 대해 "식민주의에 대한 단호하



압둘라자크 구르나



마리아 레사



드미트리 무라토프

면서도 연민 어린 시선을 견지한 작품활동이 수상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탄자니아 출신인 구르나는 영국에서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해왔다. 구르나는 1948년 아프리카 동

해안의 섬 자지바르에서 어린시절을 보냈으며 1960년대 말 영국 잉글랜드에 난민 자격으로 도착했다. 최근 은퇴하기 전까지 영국 켄트대에서 영어·포스트콜로니얼 문학 교수를 지내며 10편의 장편을 비롯해 다수의 작품을 창작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리아 레사와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공헌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논엣가시'로 불리는 온라인 탐사보도 매체 '래플러'의 공동설립자로, 두테르테 대통령이 논란을 일으켰던 '마약과의 전쟁'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지난 1993년 독립신문인 노바자 가제타를 공동 설립한 모라토프는 검열사회로 비판받는 러시아에서 주요한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해왔다. 이 신문은 창간 이래 기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편 올해 노벨상은 지난 4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까지 발표됐으며 11일 경제학상 수상자 공개를 끝으로 발표가 마무리된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변방의 장수에서 여 대선후보로...정권재창출 나서는 이재명

공장 노동자로 주경야독...사법고시까지 탄핵정국서 '사이다' 행보로 전국구 발돋움

경기 도정 이끌며 추진력 과시
선거법 무죄확정으로 기사회생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10일 선출된 이재명(57) 경기지사는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 났다'는 표현이 맞아떨어질 정도로 드라마틱한 인생 역정을 걸어왔다.

◇ 화전민 빈민층 출신...盧 만나 인권변호사의 길로= 경북 안동 화전민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만 12살 때 경기 성남으로 이주, 영세공장 등에서 소년공 생활을 했다. 시계공장에서는 스프레이 작업을 하다가 후각이 상했고,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는 프레스에 원뿔이 끼이는 골절상을 당해 팔이 구부러진 평생 장애를 안게 됐다. 그는 2017년 대선 출마 선언을 당시 일했던 성남의 시계공장 등에서 하기도 했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주경야독'으로 고임·대입 검정고시를 통과한 뒤 장학금을 받고 중앙대 법대에 입학했고, 1986년 사법고시(연수원 18기)에 합격했다.

그는 2005년 8월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투신했으나 첫 도전인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2007년 대선 때는 이른바 '미키루크'로 알려진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 사하를 지역위원장과 함께 정동영 후보의 외곽 조직인 '정통돌'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을 이끌었다. 2008년 총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성남에 민주당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이후 '제갈'을 낚춰 2010년 성남시장에 도전해 당선된 뒤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 성남시장 때 '모라토리움' 파격 주목...'차탄핵' 돌직구로 존재감= 첫 시장 임기 시작 11일 만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등 파격적인 시정 운영으로 파란을 일으켰다. 그는 재선까지 거치며 SNS상의 열성적 지지층을 중심으로 '전국구 정치인'으로 급부상했고 야권의 잠룡으로 몸값을 높이기 시작했다.

정부와 각을 세우기며 추진한 무상 교육, 공공산후조리 지원, 청년 배당 등 보편적 복지 사업은 타 지자체로 퍼져나가며 자타공인 그의 정책 브랜드가 됐다.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발, 광화문광장 앞에서 11일간 단식농성을 벌인 적도 있다. 이 후보는 같은 해 11월 시작된 촛불 집회에서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탄핵을 외치는 돌직구 행보와 대중의 정치적 갈증을 일거에 해소하는 사이 다 발언으로 견고한 팬덤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일약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다.



지난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최대 접전지 중 하나로 꼽혔던 경기도 성남 시시장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손을 흔드는 모습.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패한 그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대선 및 경기지사 경선에서 친문 진영과 경쟁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은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 과정에서 '해경궁 김씨',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 경기도지사로 추진력 과시...선거법 재판 끝 기사회생= 경기도정을 이끌면서는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자신의 기본 시리즈 정책 어젠다를 하나씩 구체화하며 대권 재도전의 칼날을 갈았다. 때로는 정부 재정 당국과 각을 세우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등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협조하지 않는 산천지 교단에 강제 역학조사를 지시하며 강경 대응으로 나서는가 하면, 도내 계곡 곳곳에 들어차 있던 불법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정비하는 등 저돌적인 행정가의 면모도 보였다.

이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에 내몰렸다. 하지만 작년 7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10월 무죄가 확정되면서 족쇄가 풀렸다. 이 후보는 피아노 전공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는 변호사 시절이던 1990년 같은 교화에 다녔던 셋째 형수의 소개로 만났다고 한다. 약 1년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

임아 **3천명 이상**
지분환영. 010-6837-4700

경기·수도권 투자
5억원 이상
하실 분. 010-3605-5000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 (매매 분양)
1)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 2) 60평(전용) 4억5천(용3억) 보2천 월200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한, 빠,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010-6670-98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쿠팡 광주 물류센터 오픈!
계약직 사원 모집

쿠팡 광주 물류센터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근무 시간	주간 : 09:00 ~ 18:00 야간 : 19:00 ~ 04:00 주 5일 근무 (주 2회 휴무)
급여 조건	주간 : 192만 + @ 야간 : 240만 + @ 연장, 특근 발생 시 추가 지급
통근 버스	광주 전 지역 운행
복리 후생	퇴직금, 연차, 단체상해보험, 명절 선물, 경조 지원, 식사제공
업무	물류(입고, 출고, 재고) 지게차/허브(분류, 상하차)
지원 자격	성별 및 학력 무관 성년인 자 [단, 정년(60세) 미만인 자] 초보 가능, 주부 가능, 동반 입사 가능

문자 or 전화지원 : 010-9664-1299
광주센터/회망 근무조/성함/생년/전화번호/근무가능기간
(예시) 광주센터/주간/홍길동/1970/010-1234-5678/3개월